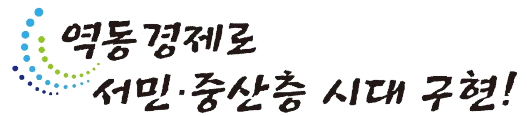


경제관계장관회의

24-19-3

(공개)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2024. 10.

관 계 부 처 합 동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요약)

I 추진 배경

- 글로벌 딥테크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SpaceX, OpenAI 등 주요 혁신기업이 비상장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벤처투자의 중요성 확대

* 美 시총 10억달러 이상 기업 :('15) 상장 721개사 vs 비상장 22개사
→ ('24) 상장 926개사 vs 비상장 665개사

- 한국은 CES 2024 ('24.1월)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유망 투자처로 부상

◇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의 핵심인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화 되도록 투자 생태계 확장 필요

II 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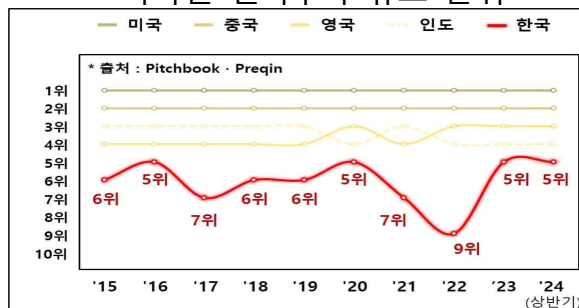
-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창업·벤처 정책 패러다임을 '글로벌 지향,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지난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상회, 전세계 5~9위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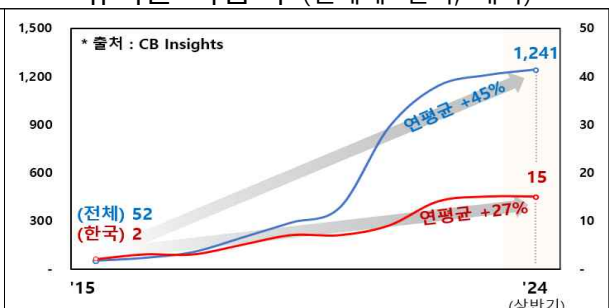
- 다만, 국내 유니콘 수는 전세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글로벌 자금 유치 필요

* 최근 10년간('15~'24) 유니콘 추이: (전체) 24배 (52 → 1,241개), (韓) 8배 (2 → 15개)

< 국가별 벤처투자 규모 순위 >



< 유니콘 기업 수 (전세계·한국, 개사) >



Ⅲ 개선 필요사항

- 글로벌 VC의 국내 벤처투자는 '23년 전체 벤처투자의 2% 수준, 글로벌 자금 유치 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획기적 성장 가능
 - * '23년 벤처투자 규모: (국내 전체) 10조 9,133억원, (글로벌 VC 등) 2,318억원
 - * 국가별 외국자본의 벤처펀드 출자 비중(%): (싱가포르) 84, (英) 74, (韓) 1
- 국내 벤처투자 참여가 소수 법인,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규 투자자의 유입 부족, 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도 제한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23. 73%), 초기 투자 감소*, 회수시장 위축 등 구조적 불균형 존재
 - *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조원): ('23.上) 1.2 → ('24.上) 0.9 (△31%)
- 벤처캐피탈 규제가 글로벌 표준 대비 투자 자율성을 제한, 국내 벤처펀드의 안정적 수익률*에도 여전히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 존재
 - * 전체 벤처펀드의 66%가 수익 창출, 연평균 수익률 9% 달성

Ⅳ 추진 전략

비전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	
목표	국내 벤처투자 ('23) 11 → ('27) 16 → ('30) 20조원	글로벌 투자유치 ('23) 0.2 → ('27) 1 → ('30) 2조원
1. 글로벌 투자유치 ▲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국내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2. 국내 투자자 확충 ▲ 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 ▲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 신규 벤처투자 참여주체 확대		
3.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 ▲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 세컨더리·M&A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		
4.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투자규제 완화 ▲ 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 ▲ 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제고		

[전략 1]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①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국내 VC의 글로벌 투자자 유치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모펀드 (가칭 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26~'27)
* 중동, 美 델라웨어, 英 케이만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조성 검토
- 해외 VC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허브' 입주 우대('25.12월 개소), 글로벌펀드 출자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출자 및 수익 회수 시 이중 환전 부담 해소를 위하여 달러 기반 벤처투자조합 운용 허용

② 국내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 '27년까지 15조원 조성
- 국내 VC의 해외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VC 전용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신설('25안. 500억원 출자)
- 글로벌 벤처투자 거점 확대(미 동부 등)를 추진하고, '25년 APEC 정상회의('25.10)와 연계한 글로벌 투자협력 행사 개최 추진

③ 국내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신설,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 분산된 외환거래 신고절차를 통합 대행
- 외국인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 하도록 신고 서류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전략 2]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충

① 은행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

-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 예외 적용
* 정부·지자체 출자 벤처펀드 등 요건 충족 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400→100%)
-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신설
* 전년 대비 출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투자분야 자유 제안 허용 등

②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24. 시범) 및 전용 펀드* 신설('25)
* 대기업이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스타트업 투자 시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
-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 외부자금 모집(펀드별 40 → 50% 이내), 해외기업 투자(총자산 20 → 30% 이내)
- 대기업·공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가칭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여 협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③ 신규 벤처투자 참여 주체 확대

-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 신설('25안. 200억원 출자)
* 모태펀드가 1:1 매칭 출자, 우선손실충당·풋옵션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연기금·투자폴의 신규 벤처투자 및 투자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평가 벤처투자 가점기준(최대 1점) 개편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 수요 확인 등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 논의 시작
- 대·중견기업이 개방형 혁신 목적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참여 시 투자분야 확대를 허용*하고, 출자금액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 (기존) 초격차 등 제한 →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특성에 맞게 확대 허용

[전략 3]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

①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

- 지역 전용 벤처펀드 1조원 추가 조성('25~'27),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지방시대' 분야로서 지역 은행 및 거점기업의 참여 촉진
* 모태펀드가 지역 은행·거점기업 등 민간 출자자에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제공
-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 신설, 합동 지역순회 IR 개최 및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확충 추진
- 인구감소지역 전용 펀드를 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지역 특화 운용사 육성을 위해 지역 투자실적, 본점 소재 여부 등을 선정평가 시 반영

②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 모태펀드 창업초기 출자 확대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 초기창업 투자 의무 제안 시 우대, 업력 5년 이내 기업에 관리보수 삭감 규정 미적용 등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제도 개선
* 창업기획자의 컴퍼니빌딩 방식 투자 허용,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완화 등

③ 세컨더리·M&A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25. 1억달러)하고, 모태펀드 자펀드가 중간 회수시장에 기여하도록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
- 기업승계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 조성('25안. 200억원 출자) 및 민간 중개 기능을 지원하는 기보 M&A 전담센터 신설
- 벤처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M&A로 대기업 편입 시 매각 의무를 폐지하는 등 회수 관련 투자 규제를 완화

④ 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

- 투자 소외영역 보완, 업계 표준 제시 등 모태펀드 역할 확대
* 시장 소외영역 투자목표 설정, 투자기간 제한 폐지를 통한 장기 운용 유도 등
-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35년) 영구화 검토 등 안정적 운용 기반 마련

[전략 4] 글로벌 수준 벤처투자 환경 조성

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벤처투자 규제 완화

- 벤처투자회사가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별 투자의무 폐지, 연도별 투자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
- 실리콘밸리식 선진 운용방식을 도입, 벤처펀드의 투자·관리 업무의 분업화를 허용하여 전문성 제고
 - * '조합운용전용회사' 제도 도입, 회계·법무·세금신고 등의 외부위탁 허용
-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결성·운용 규제 완화
 - * 최소 결성규모(1,000→500억원), 출자금액(200→100억원) 완화, 개인투자조합 출자 인정

② 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

-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투자계약서 개정
- 벤처투자 시장에 우수한 심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경진대회, VC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

③ 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제고

- 벤처투자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우수 투자자는 정부 포상 등 대외 공표하여 벤처투자 우수 성과 홍보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의 부실 징후를 사전 경고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 중대한 경영위기 발생 시 공시 조치, VC 구조조정 및 출자자 보호 컨설팅 지원 등
-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대상 규제,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관계사 투자 규제 등을 정비하여 벤처펀드의 건전한 운용 도모
-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률 평균 및 분포 등을 정례 공표하고, 투자 분야별 특화 벤처캐피탈 정보 제공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 주소	3
III. 개선 필요사항	6
IV. 추진 전략	8
V. 세부 추진방안	9
1. 글로벌 투자유치	9
2. 국내 투자자 확충	14
3.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18
4.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24
VI. 추진일정	28

I . 추진 배경

◇ 비상장 딥테크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부상

- SpaceX, OpenAI 등 글로벌 딥테크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이 비상장 시장에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헥토콘으로 성장

* 유니콘·데카콘·헥토콘: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 10억\$·100억\$·1,000억\$ 이상 기업

- 국내도 딥테크 투자가 증가*하면서 토스, 당근마켓 등 유니콘과 함께 리벨리온(AI), 이노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유망 기업 대두

* 딥테크 벤처투자 규모(조원): ('23.上) 0.7 → ('24.上) 1.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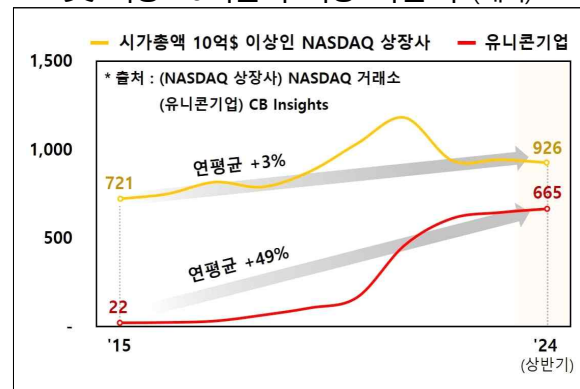
- 유니콘*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혁신의 '뉴노멀'로 자리매김

* 기업가치 10억\$ 이상 비상장기업, 상상속 동물처럼 희소하다는 개념으로 '13년 등장

- 美 시총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의 상장기업 수 대비 비중은 '15년 3% 수준에 불과했으나, '24년에는 72% 수준으로 추격

* ('15) 상장 721개 vs 비상장 22개
('24) 상장 926개 vs 비상장 665개

< 美 시총 10억달러 이상 기업 수(개사) >



- 대규모 모험자본 등장으로 비상장시장에서 혁신 경쟁이 본격화 되고, 기업공개(IPO)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로 변화

* 기업공개 시 대규모 자금 조달 이점과 기업 세부전략 노출, 주주 대응 부담 등을 고려

- 특히, 딥테크 기업은 매출 성장단계를 뛰어넘어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생존 가능하므로 벤처투자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

* 바이오 기업의 52%가 매출 발생까지 10년 이상 소요(한국바이오협회)

◇ 주요국은 딥테크 패권 경쟁 下 벤처투자 시장을 집중 육성

-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딥테크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정책역량 결집

구 분	주요 내용
	▲ 일본투자기구 설립, 33개 벤처펀드에 1.6조원 출자('18)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7년까지 10조엔 투자유치 계획 발표('22)
	▲ 벤처투자 질적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 발표('24) * 자금 유치, 투융자, 펀드 관리, 투자 회수 등 전 과정의 정책환경 및 관리제도 개선
	▲ 100억원 이상 벤처펀드에 대해 15년간 수익의 100% 비과세 적용

- 특히, 전통적 국경이 무의미한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전세계의 풍부한 유동성 등 투자자 유치에 총력전 경주

◇ 격화되는 벤처투자 경쟁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존재

- (위기) 저성장·고금리 기조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경직된 투자제도와 제한된 회수시장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
- (기회) 국내 스타트업이 CES 2024('24.1월)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적 인지도 상승
 - * 한국이 전체 27개 중 8개 수상(최다), 8개 중 7개가 벤처·스타트업
- 아시아 투자처를 물색하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일본을 주목
- 벤처캐피탈 확대('20. 229 → '24. 361개사) 등 생태계가 성숙하고, 세계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모태펀드 등 인프라 존재

◇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의 핵심인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화 되도록 투자 생태계 확장 필요

II. 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 주소

◇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 모태펀드는 '05년 출범('35년 기한) 이후 태동 단계인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 정부 주도로 마중물을 공급,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
 - '13년 팁스*(TIPS) 신설으로 창업지원 정책에 민간 주도 방식을 도입하고,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투자제도를 재정비
 -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투자자가 혁신 창업 기업을 선별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
- 현 정부 창업·벤처 정책 청사진으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발표*, 정책 패러다임을 글로벌·민간 중심으로 전면 전환
 -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정책('23.8, 관계부처 합동)」
 - 한국인의 국내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외국인의 국내 창업, 한국인의 해외 창업 등 '글로벌 向' 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으로의 전환 시작
 - * 글로벌 딥테크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민·관 합동 벤처펀드('24~'27, 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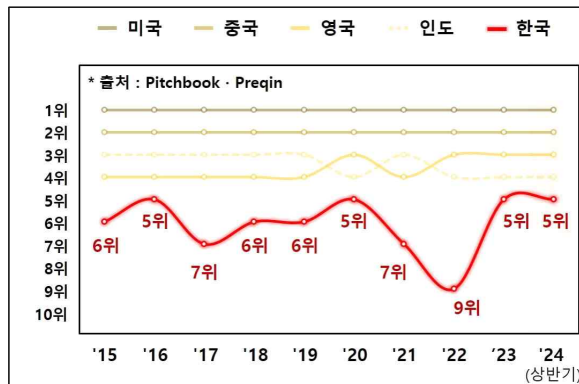
대책 명	주요 내용
K - 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22.9)	민간역량 활용 맞춤형 지원,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2.11)	글로벌 진출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23.8)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글로벌화 추진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24.7)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AI 펀드 조성

-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모멘텀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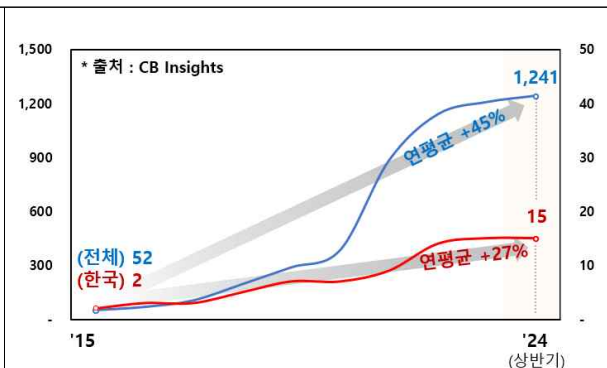
◇ 글로벌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자금 유치 필요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나, 전세계 5~9위권을 확보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지난 15년간('08~'23)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동기간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 13%를 상회
 - * 전세계 벤처투자 (\$, preqin): ('08) 570억 → ('23) 3,512억 (年 +13%)
- 주요국은 전세계 유동성을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확충 중이나, 우리나라는 국내 자본만으로 성장하여 4위권 도약에 한계
 - * 외국자본의 벤처펀드 출자 비중(% preqin): (인도) 87, (싱가포르) 84, (영국) 74, (한국) 1
 - 특히, 유니콘 탄생에는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전세계 유니콘 증가세 대비 국내 유니콘 수가 정체 상황
 - * 최근 10년간('15~'24) 유니콘 추이: (전체) 24배 (52 → 1,241개), (韓) 8배 (2 → 15개)

< 국가별 벤처투자 규모 순위 >



< 유니콘 기업 수 (전체 · 한국, 개사) >



◇ 국내 벤처투자의 뛰어난 성과에도 고위험 투자 우려가 과도

- 국내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年 9% 수익 실현
 - * '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24.6월까지 청산된 1,107개 펀드 전수 분석
 - 전체 벤처펀드의 66%가 원금 이상(연평균 수익률 16%)의 수익 창출
 - 국내 스타트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2배 내외를 달성하였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
 - * 동 기간('95~'23) 채권 수익률(%) : (국고채 5년물) 5.0, (국고채 10년물) 3.9

< 벤처펀드 수익률 전수 분석 결과('87~'24) >

◇ '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24.6월까지 청산된 1,107개, 16.3조원 규모 벤처펀드 전수 분석 결과 최초 공개

□ (총액) 총 16.3조원의 투자금 유입, 내부수익률(IRR) 8.7% 기록

□ (수익 분포) 펀드 수 기준 66%가 수익 창출, 34%가 손실 발생

* 펀드별 결성규모를 고려한 투자금 기준으로는 투자금의 73%가 수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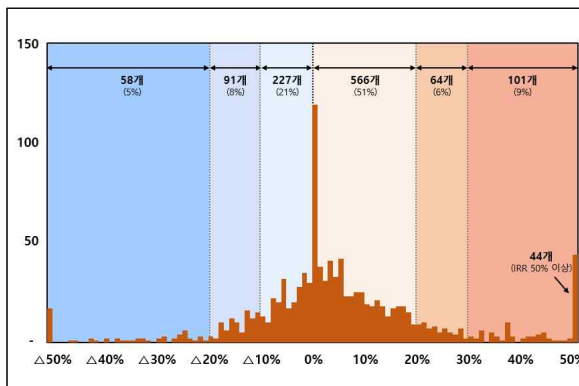
구 분	수익률 구간	비중 (%)	평균 수익률 (%)
수 익	30% 초과	9	15.7
	20 ~ 30%	6	
	0 ~ 20%	51	
	소 계	66	
손 실	△10 ~ 0%	21	△10.8
	△20 ~ 10%	8	
	△20 초과	5	
	소 계	34	
총 계		100	8.7

□ (평가) 벤처투자가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는 달리, 국내 스타트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익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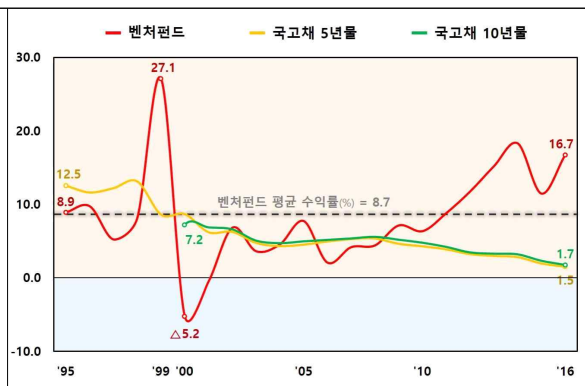
* 같은 기간('95~'23) 채권 수익률(%) : (국고채 5년물) 5.0, (국고채 10년물) 3.9

○ 특히,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모태 자펀드도 원금의 1.5배를 회수하고, 평균 9.0% 수익을 실현 (277개 펀드)

<연평균 수익률(IRR) 구간별 펀드 수 분포>



<자산별 수익률 비교 (%)>



Ⅲ. 개선 필요사항

◇ 국내 벤처투자 시장 규모 대비 글로벌 자금 유치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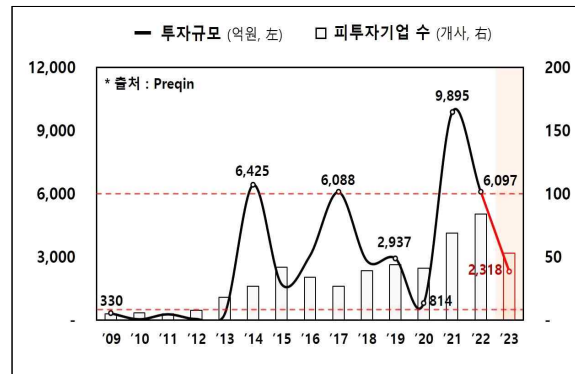
□ '23년 국내 벤처투자 대비 글로벌 VC의 국내 투자는 2% 수준

* '23년 벤처투자 규모: (국내 전체) 10조 9,133억원, (글로벌 VC 등) 2,318억원

-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수는 연간 50개사 내외 수준으로, 소수 대형투자 중심으로 진행

* 역대 최고 수준인 '21년은 투자금 상위 3개 기업이 전체의 73% 차지

* 투자단가(억원): (국내) 28 vs (해외) 69



□ 주요국은 글로벌 자금 유치로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고급 인력을 창업 시장으로 유인 중이나, 우리나라는 국내 자본중심 투자

◇ 투자재원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 부족

□ 산업자본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벤처투자 제도 기반 미비

-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자유로운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 등으로 대기업의 벤처투자 참여가 주요국 대비 저조한 수준

* '22년 벤처투자 중 기업형 벤처캐피탈 비중(%): (미국) 49, (한국) 22

□ 전통적 벤처투자 참여 주체인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참여도 제한

- BIS 비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상 벤처투자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금융권의 과감한 벤처투자 확대의 한계로 작용
- 연기금은 장기 운용 특성 상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의 주요 참여주체이나, 우리나라는 연기금의 9%(68개 중 6개)만 참여 중

◇ 지역 편중, 경직된 회수시장 등 벤처투자 시장 불균형 지속

- 전체 벤처투자 중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벤처투자 유치 기회가 제한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19) 21 → ('21) 18 → ('23) 27

- 창경센터 등 지역 창업·보육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벤처투자 유치를 통한 중·후기 성장 등 지역 내 기업 성장사다리 부족

-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에 걸맞는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부족

- 중간 회수가 어려움에 따라 비교적 회수 가능성이 높은 후기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집행되면서, 초기 투자 감소 추세*

*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조원): ('23.上) 1.2 → ('24.上) 0.9 (△31%)

- 특히, 국내 상장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세컨더리, M&A 등 중간회수 시장의 중요성 확대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규제 존재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투자자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선진 운용기법 도입 등 투자 자율성을 제한

* 예: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기업에 40% 이상 투자의무 부여

- 국내 벤처펀드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

* 창업초기 비상장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

-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표준보다 엄격하게 적용 중인 투자자 사전동의권*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

* 피투자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

IV. 추진 전략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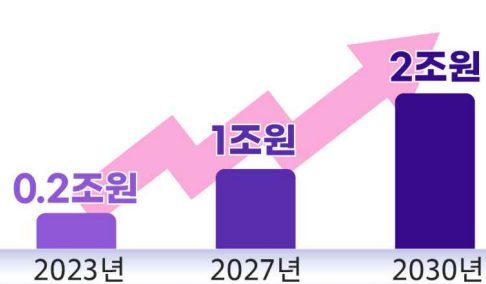
“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 ”

목표

국내 벤처투자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세부 추진과제

글로벌 투자 유치

- 1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2 국내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 3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국내 투자자 확충

- 1 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
- 2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 3 신규 벤처투자 참여 주체 확대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 1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
- 2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 3 세컨더리·M&A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4 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투자규제 완화
- 2 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
- 3 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제고

V. 세부 추진방안

전략 1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 ◇ 글로벌 투자유치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의 외자유치, 글로벌펀드 운용 등에 대한 전방위 지원 강화
- ◇ 한국이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직·간접 투자절차 및 규제비용이 예측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쏠 과정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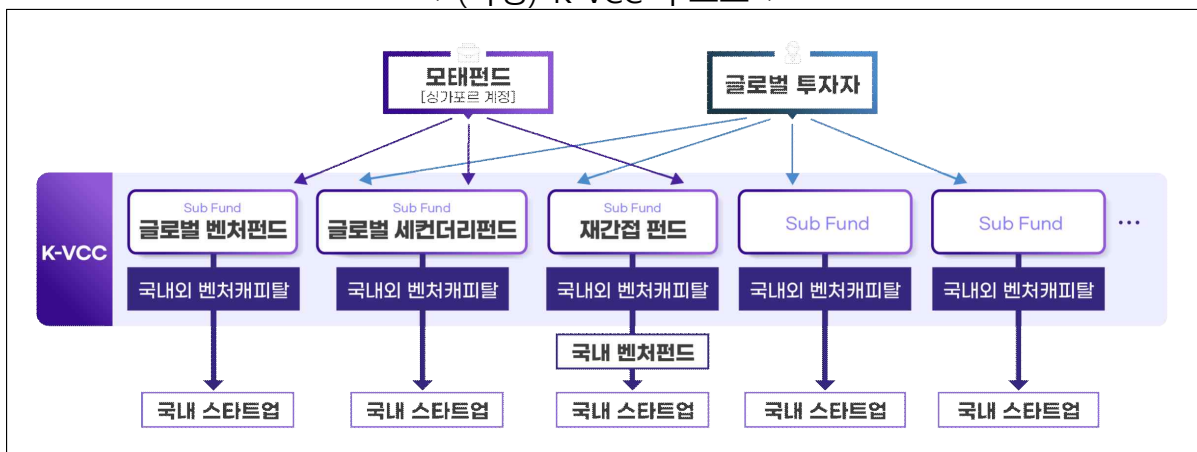
1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K-글로벌 모펀드(가칭 K-VCC) 도입

- 중동, 싱가포르, 델라웨어(美), 케이만(英) 등 유동성이 집중되는 금융 허브에 글로벌 투자자 유치 목적 모펀드(Umbrella fund) 설립
- 이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 '(가칭) 한국벤처투자 가변자본기업(K-VCC*)'을 설립, 2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26~'27)

* 가변자본기업 (VCC : Variable Capital Company) :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Umbrella Fund)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 가능

< (가칭) K-VCC 구조도 >



- 국내 VC가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플랫폼으로서 'K-VCC' 설립

* 국내 VC는 K-VCC의 하위펀드를 운영(국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글로벌펀드, 세컨더리 펀드, 국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등)

-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사무소를 아시아 투자유치 허브로 확대

현장의 목소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홍콩 內 반중(反中) 민주화 운동 등으로 중국·홍콩의 풍부한 유동성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음" (Bloomberg, '24.2) "싱가포르에는 VCC에 전향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등록 요건이 엄격하여 라이선스 취득에 2~3년이 소요되고, 유지비용도 상당" (A 국내 VC)
----------------	--

□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한국형 스테이션 F'로 조성 예정인 글로벌 창업허브 ('25.12월 개소, 서울 홍대)'에 글로벌 VC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임대료 우대 등 지원 추진



- 국내 사무소를 보유한 해외 벤처캐피탈에 대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 및 출자한도 상향(최대 1→2천만달러)

□ 달러 기반 벤처펀드 운용 허용을 통해 이중 환전 부담 해소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수익 회수 시 이중 환전부담을 겪지 않도록 달러 기반 운용도 허용

□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계 정례 공표

-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prequin 등)과 협업,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외를 포괄하는 벤처투자 통계 작성

* 기존 벤처투자 통계는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실적 중심으로 집계

② 국내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 '27년까지 15조원 조성

* 해외 VC 등이 모태펀드 출자액 이상 국내 벤처·스타트업 의무투자하는 펀드

- 글로벌 최고 수준의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펀드별 출자한도를 확대(1→5천만달러)하고, AI·임팩트 등 출자분야 다변화

□ 국내 VC 전용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신설 ('25안. 500억원 출자)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은 트랙레코드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검증한 기관이라는 평판이 중요" (B 국내 VC)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VC의 해외자금 유치에 지원하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의무, 해외 출자자 참여 의무 등을 설정
- 국내·해외 VC 공동 운용도 허용('24. 시범운영)하여 교류 촉진

□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K-Global Star*' 본격화 (연 30개사)

* 영문 제안서 제작 등 6주 사전교육 → 현지 투자설명회 → 후속 법률지원

- 투자유치 성공 시 전용 펀드(연 100억원) 매칭투자, 아기·예비 유니콘 수준의 전용 보증, 글로벌 TIPS 등 후속 지원

□ 글로벌 벤처투자 거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금융 허브에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 확충 추진

* (기존) 미 서부, 싱가포르, 영국, 중국 등 4개소 운영 → (추가) 미 동부 등 신설 추진

- 한국벤처투자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창진원, 신·기보, 민간 VC가 집적된 민·관 합동 벤처투자 유치 허브로 고도화

<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



-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협·단체 등과 '글로벌 투자 협력 지원 원팀 협의체*'를 구축, 해외 투자유치 전 과정 지원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24.6월 출범)'의 벤처투자 분과로 운영

- 권역별 한인 VC 네트워크를 구축, 반기별 네트워크 행사 개최

* 한국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본떠 만들어진 美 한인 네트워크 모임 "82 Startup Summit('18년 설립)" 등 기존 네트워크를 전세계로 확장하여 구축

□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행사 국내 유치

-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정례 개최*('24.12)하고, 세계적인 벤처투자 행사 '슈퍼리턴', 'AVCJ' 등에 한국 세션을 신설

* 글로벌 CVC 네트워크인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 2,000개사 참여)와 연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5.10)의 한국 개최와 연계하여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벤처투자 협력행사 진행 추진

< GCV in Korea 2023 ('23. 11) >



< SuperReturn Asia 2023 ('23. 9) >



3 국내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현장의 목소리

"국내 외환 거래 및 세무 절차는 복잡하고 비정형화되어 있어, 한국인 직원이 없는 해외 투자자는 국내 투자 검토가 불가능" (C 한국계 美 VC 대표)

□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 신설 등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시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으로 분산된 외환거래 신고절차를 통합 대행하는 신고센터 신설
 - 통합신고센터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통첩 시행
 - * 통합신고센터의 원활한 외환거래 신고 대행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민간 외국환은행과 협업하여 '벤처투자 특화 지점' 지정 추진

<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 >



□ 해외투자자 대상 외환거래 및 세무신고 통합 매뉴얼 발간

- 외국인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하도록 신고 서류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 * 중기부·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통합 안내 매뉴얼 제작
- 해외 투자자 대상 국내 벤처투자 절차 등 컨설팅 지원
 - * 한국벤처투자 산하 '글로벌 벤처투자 법률자문단(법무법인 Pool)' 구성

전략 2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충

- ◇ 금융권, 산업자본, 연기금, 일반 국민 등 주체별로 벤처투자 참여경로를 대폭 확대, 새로운 모험 투자자의 참여 촉진

1 은행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

-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책목적 벤처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예외적용

* 위험가중치(%): (부동산 PF) 150, (상장주식) 250, (벤처투자) 400

현장의 목소리

"지역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 스타트업 육성 및 모험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함" (제26차 민생토론회, '24.6.20)

"벤처펀드 출자금의 위험가중치가 워낙 높다 보니, 금융지주 연결재무제표에도 부담이 되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없음" (D 은행)

- 정부·지자체가 정책 목적으로 출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적용(400 → 100%)

바젤 III 위험가중치 100% 적용 기준	벤처펀드 적용 예시
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 ②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 ③ 정부 감독 下 자본을투자지역 등 제한	①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 ② 정부(모태펀드)가 일정 비율 출자 ③ 정부 감독 下 투자분야 등 제한

-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점 협의체(중기부·금융위 등) 논의 범위를 벤처투자까지 확대(현행: 융자·보증 중심)하여 정기 논의*

*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건 논의, 반기별 금융권 벤처투자 현황 점검 등

-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신설

- 금융회사가 전년대비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시 모태 자펀드에 우선손실충당 등을 제공하고, 우수 금융기관 대상 포상 확대

* 전년 대비 출자증가분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 부여

- 특히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출자확대분을 출자하는 경우, 투자분야·조건 등 펀드구조를 금융권이 제안하도록 허용

2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및 전용 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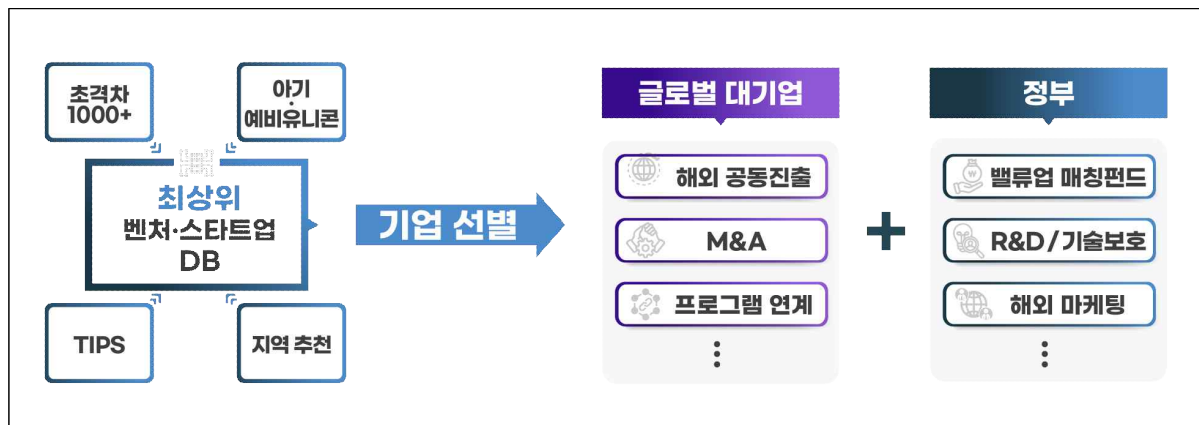
*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검증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양측에 수요 기반 매칭 및 특화 지원(24.8월 출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8개사 참여)

-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 4,000개사를 DB화하여 대기업 협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 선별 절차 간소화

* (민간검증) 초격차 1000+, 아가·예비유니콘, 스케일업팁스 등 틱스 선정기업 (지역추천) 지방중기청장이 지역 혁신 창업·벤처기업 추천

- 대기업·스타트업 간 매칭 이후 추적관리를 통한 후속 연계 지원(기업당 최대 2억원)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 창출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구조도 >



- 대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까지 집행 시 모태펀드가 매칭투자하는 밸류업 펀드 신설

* 대기업 투자금액에 모태펀드가 1:1 매칭투자 (20억원 한도)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 한국인이 창업하거나 최대 주주인 기업 등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외투자(현행 20% 한도)가 아닌 국내투자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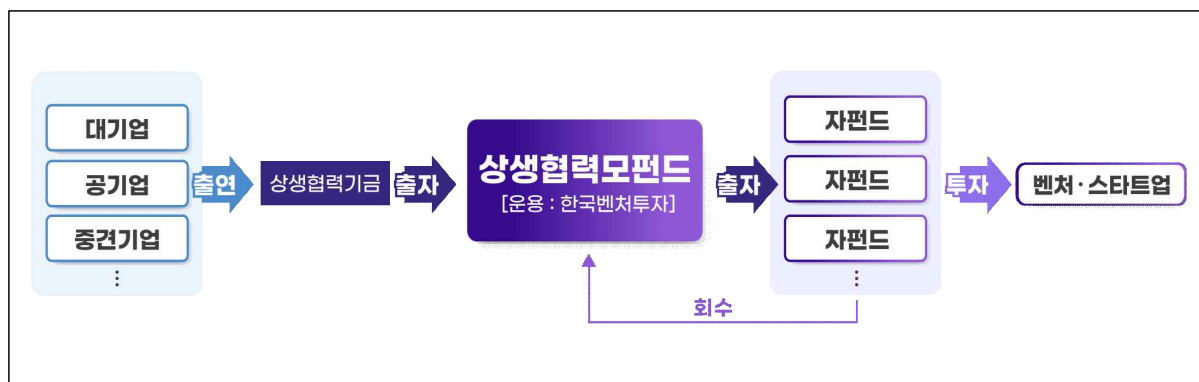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선]
• CVC 외부자금 모집	• 펀드별 40% 이내	⇒ • 펀드별 50% 이내
• CVC 해외기업 투자	• 총자산 20% 이내	⇒ • 총자산 30% 이내
• 국외창업기업 투자	• 해외기업 투자로 산정	⇒ • 국내기업 투자로 산정

□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가칭)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24.6, 기시행),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펀드를 통해 벤처펀드 출자경로 제공
- 벤처펀드의 운용수익은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벤처펀드에 재출자하도록 제한, 상생협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 협력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벤처펀드 수익금으로 복지 지원

< (가칭) 상생협력모펀드 구조도 >



3 신규 벤처투자 참여 주체 확대

□ 연기금 등 최초 기관 출자자 대상 'LP 첫걸음 펀드' 신설

- 벤처투자조합 출자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 출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25.안. 200억원 출자)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최초 출자에 대해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하고, 우선손실충당·풋옵션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

< LP 첫걸음 펀드 구조도 >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폴*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재간접펀드('23. 61개 연기금이 39조원 위탁)

- 연기금·투자폴의 신규 벤처투자 및 투자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평가 벤처투자 가점기준(최대 1점) 개편

* (예시) 여유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을 받는 출자규모(現 100억원) 조정 등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 수요 확인 등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 논의 시작

□ 민간 자금 유인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지속 조성(~'27, 3조원)

- 대·중견기업이 기술제휴, 공동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펀드 참여 시 투자분야 확대* 허용

* (기존) 초격차 등 제한 →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특성에 맞게 확대 허용

- 벤처투자 참여 금액을 확대하는 출자자에 펀드 우선 참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체 벤처투자 재원 확충 추진

전략 3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

- ◇ 자생적인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 투자, 회수시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
- ◇ 지난 20년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

1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

현장의 목소리

“비수도권에서는 벤처투자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부족하여 벤처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을 검토” (E 스타트업)

□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대폭 확대, 추가 1조원 조성 ('25~'27)

* '25년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규모 2배 확대('24. 1,000 → '25안. 2,000억원)

○ (출자분야) 스타트업코리아펀드* 內 ‘지방시대’ 분야 추가

* 조성목표: (기존) 초격차 등 2조원('24~'27) → (추가) '지방시대' 1조원 추가('25~'27)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구조도 >



○ (지역배분) 비수도권 14개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조성

○ (인센티브)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 조성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제공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업 강화

-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가칭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 지역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 정례 논의
-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 순회 IR*,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중앙·지방 협업 강화

* 지역 스타트업을 수도권 투자자에 소개하는 'K-Global Star 지역 IR'을 광역권별 年 1회 개최(예: 동남권,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 지역 기업 유치 및 투자금 공급을 위하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전용 펀드를 年 1,000억원 조성

*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총 107개)

** ('24) 200억원 규모 시범 조성 → ('25~) 출자규모 확대 검토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사업 체계 개선

- **모태펀드 자펀드가 지역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분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비율을 상향** (예: 120%*)

* 예: 여성기업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 여성기업에 10억 투자할 경우, 주목적 투자비율(여성기업 투자비율) 산정 시 12억 투자한 것으로 간주

- 지역 창업초기 펀드의 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기업** (현행: 3년)으로 확대, 비교적 성장이 느린 지역 특수성 반영
- 지역 특화 운용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중점 투자지역 내 투자실적, 본점 소재 여부 등을 평가

②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 모태펀드를 통한 초기 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 추진 ('24. 800억원)
- **모태 자펀드가 초기투자를 확대하도록 평가·관리체계 정비**
 - 창업초기 외 출자사업 선정평가 시 초기창업 투자 의무 제안 (예: 30% 이상) 운용사에 가점 부여
 - 창경센터의 출자사업 참여 시 부채비율(200% 이내)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지역 소재 기업 초기투자 기반 마련
 - * (현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채로 계상 → (개선) 보조금은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피투자기업 업력이 5년 이내 시 관리보수 삭감 규정 미적용
- 'AC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초기 투자금 회수 지원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제도 개선

-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빌딩) 허용범위 확대**
 - * (현행) 창업기획자는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기업만 지분 50% 초과 보유 허용
 - (개선) 컴퍼니빌딩 목적의 자회사 설립 시에도 지분 50% 초과 보유 허용

현장의 목소리

"해외에서는 벤처 스튜디오, 아이디어랩 등의 이름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기획, 팀 구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컴퍼니빌더' 다수"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현행: 3년 미만)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을 위한 투자 의무 요건 완화(3년간 1억원 → 5천만원 이상 투자)를 통해 엔젤투자 확대 촉진

③ 세컨더리 · M&A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모태펀드 등을 통한 세컨더리 투자 여력 확충

- 국내 세컨더리 지분 투자 수요가 있는 주요국(싱가포르 등)의 투자자를 유치,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조성 ('25. 1억달러 조성)
 - * 글로벌 투자자 유치가 용이한 글로벌펀드로 조성하되, 국내외 VC 모두 참여 허용
- 모태 자펀드가 주목적 투자 분야 기업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주목적 투자 인정(최대 20%)
 - *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구주를 매입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구주 매입 시 한국벤처투자 등 조합원에 사전 보고 의무화

현장의 목소리

"새롭게 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구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침체된 회수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F 국내 VC)

- 기술보증기금의 우량기업 대상 엔젤투자 등 구주 지분 인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25. 50억원 → '26. 60억원)

□ 기업승계 전용 M&A 펀드 조성('25안. 200억원 출자)

- 건실한 중소기업이 후계 경영인의 부재로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제3자로서의 기업승계 전용 펀드 신설
 - * 中企제조업 CEO 60세 이상 비중(중기중앙회) : ('12) 14.1% → ('22) 31.6%
- 펀드의 기업인수 뿐만 아니라 기업 간 M&A 과정에서 인수측 기업의 인수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도 주목적투자로 인정

□ M&A 전 과정을 측면 지원하는 "기보 M&A 전담센터" 신설

- 민간 중개기관과 협업, 매도·매수희망 기업 발굴부터 거래 중개, 인수자금, 기술탈취 예방 등 M&A 거래 전주기 지원
- 기보가 보유한 매도기업 기술평가 정보 등을 민간에 개방, 민간 중개기관은 정보를 토대로 매수·매도기업 매칭 및 협상 조율

< 기술보증기금 M&A 센터 운용구조 >



- 매수기업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 지원
 - * 최고한도 200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고정보증료 0.5%
- 기출탈취 방지를 위해 **계약서 작성 컨설팅**(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최대 60시간) 및 **거래자료 기록**(증거지킴이 시스템*) 지원
 - *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수수료 5회 지원

□ **세컨더리·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펀드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 불리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M&A로 대기업집단에 포함 시 5년 이내 매각 의무를 폐지
- M&A 이후 창업주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요건 합리화**
 - * (현행) 기존 창업주 지분 매각 필요(1% 미만) → (개선) 지분 보유 일부 허용
- 국내 중소기업 M&A 통계를 신설, 거래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M&A 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인식 개선
 - * 중기부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 협단체 등이 협력, 민간 중개·자문기관 정보 제공
- 세컨더리 수요·공급 투자자,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세컨더리 전용 **Closed-IR**을 정례 개최(창경센터, 월1회)하여 수요기반 거래촉진

4 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

- 투자 소외영역 보완, 업계 표준 제시 등 모태펀드 역할 확대
 - 여성·재도전 기업, 임팩트 투자 등 공공성이 높으나 민간 투자가 불충분한 영역에 대한 투자목표 설정
 -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현행 4년)하고, 장기 운용(투자+관리기간) 시 우대하는 등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 강화
 - 모태펀드 자펀드의 운용·관리 구조가 일반 벤처펀드의 표준으로 정착하는 점을 고려, 선진시장의 운용구조* 도입 등 검토
- * 조합운용전문회사 등 선진시장 운용구조를 도입한 VC 대상 별도 리그 신설 등
-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보수 체계 혁신

현장의 목소리

"관리보수 삭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서,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의 재무제표 등을 중시하며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분위기" (G 국내 VC)

- 관리보수 지급체계 다양화*로 보수 산정과정의 행정부담 경감
- * 사전에 연차별로 확정 또는 사후 펀드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 등 선택권 부여
-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하고, 투자금 회수 시 관리보수 삭감분을 소급 지급하여 보다 도전적인 투자 촉진

< 모태펀드 자펀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
• 관리보수 소급	• 미허용	⇒ • 투자금 회수 시 소급
• 관리보수 삭감 유보	• 삭감 유보 미허용	⇒ • 경영 개선 예상 시 유보 허용
• 후속투자 인정 요건	• 전환사채 미허용	⇒ • 전환사채 허용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 성장과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35년) 연장 또는 영구화 등 검토

전략 4 글로벌 수준 벤처투자 환경 조성

- ◇ 美 실리콘밸리 등 선진 투자시장에서 허용하는 것은 모두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 ◇ 벤처투자 시장 건전성 제고, 수익률 정례 공개 등 수익성과 손실 가능성을 투명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관심과 신뢰도 제고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벤처투자 규제 완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규제를 대폭 완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도 의무투자로 인정

* 한국인이 창업하거나 최대 주주인 해외법인 등 창업지원법 상 '국외 창업기업'

- 펀드별 투자 의무 폐지,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등 자율성 확대

< 벤처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 규제 완화 >

[구분]	[현행]	[개선]
• 투자 의무 대상	• 창업, 벤처기업	⇒ • 전체 중소기업
• 해외법인	• 불인정	⇒ • 국외창업기업 인정
• 펀드별 투자 의무	• 20%	⇒ • 폐지 ※ 총자산 투자 의무(40%) 유지
• 투자 의무 준수 기간	• 등록 후 3년 이내	⇒ • 등록 후 5년 이내
• 연도별 투자 의무	• 매년 1건 이상	⇒ • 3년마다 1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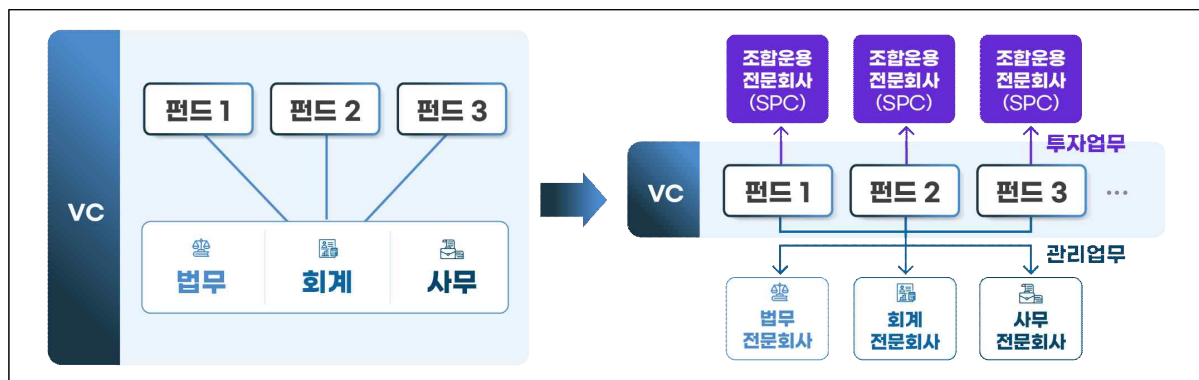
□ 선진 운용방식을 도입, 벤처펀드 운용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미국은 펀드운용인력에 대한 명확한 권리·책임을 설정하는 외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허용, 다양한 방식의 분업화가 가능 (H 한국계 美 VC)"

- (투자업무) 투자기업 선별, 계약체결, 회수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
 - * '조합운용전문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및 SPC 임직원의 출자로 설립하고, 사전 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여 책임성 강화
- (관리업무) 벤처투자회사는 투자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행정·관리업무 등은 전문회사(회계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 행정·관리업무 위탁기관은 전문인력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펀드 운용의 적법성 확보

< 벤처투자조합 분업형 운용 구조 예시 >



□ 스케일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자 수 제한 확대 검토

- 벤처펀드 대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벤처펀드는 출자자 수 제한(현행 49인)을 최대 100인 이하**로 확대 검토

*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운용사 외부점검 강화 등

**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하고 전문투자자 포함 시 최대 100인까지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성·운용규제 완화

- 최소 결성규모 요건(1,000 → 500억원) 및 최초 출자금액 요건(200 → 100억원) 완화를 통해 활성화 기반 마련
- 의무출자 인정대상을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벤처펀드 등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2 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계약 제도 확산

현장의
목소리

"후속 투자 유치 시 이전에 투자한 VC가 투자조건을 동의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해외VC는 사전동의권 때문에 투자검토도 철회" (I 스타트업)

-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VC·스타트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투자계약서 개정***

* 예: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판례('24.6)를 감안, 제3자 미승계 규정을 명문화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 상 자본 또는 부채의 분류가 명확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모태자펀드는 준수 권고

* 먼저 투자자금을 집행하고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로 지분율을 결정하는 투자방식으로, 회계상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 혼란 존재

□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인력 양성

- 벤처캐피탈에 우수한 심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 대학(원)생 팀에 가상투자금을 부여하여 투자 결정, VC가 심사하여 수상팀 결정

- 대학별 팀을 구성하여 **사전 교육**('24시범. 6개팀 → '25. 10개팀) 이후 대회 개최, 우수 팀은 VC 인턴십 기회 및 **美 경진대회** 참여 지원

* '24년 시범사업(안): 1~3위팀 상금 수여, 1위팀 중기부장관상 및 美 대회 참가지원

< 해외 사례 : 美 VCIC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etition) >

- ◇ '98년 노스캐롤라니아대에서 MBA 학생이 벤처투자를 체험하는 교육행사로 시작
- ◇ '23년 기준, 75개 대학 1,500여명이 참가, 지역(실리콘밸리·동남아·유럽 등) 대회 및 결선을 위한 국제 대회 개최

- 중대형 VC 중심으로 **대학생 채용설명회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인력의 VC업계 유입 지원('25. 시범추진)

③ 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제고

-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에 대한 연간 운용성과평가 실시
 - 우수한 실적을 거둔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개별 회사의 동의를 거쳐 대외 공표*하고,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올해의 VC TOP 10, 올해의 창업기획자 TOP 5 등
- 벤처캐피탈 부실징후 경고 및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자본잠식 등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벤처캐피탈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조치 도입
 - 부실징후 발견 시 구조조정 및 출자자 보호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정비*
 - * VC 간 합병 시 투자의무행위제한 완화, 제재처분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등
- 벤처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 유한회사형(LLC) 벤처캐피탈에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규제 적용
 - * (현행) LLC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등록 요건만 규정, 규제 공백 존재
 -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관계사 투자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상충방지 강화
 - * (현행) 관계사 투자가 허용되는 요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개인투자조합의 불건전행위(조세포탈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요건도 구체화
- 국내 벤처펀드 수익률 정례 공표 등 홍보 강화
 -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률 평균 및 분포 등을 정례 공표하고, 투자 분야별 특화 벤처캐피탈 정보 제공
 - * 평균 수익률, 수익률 구간별 분포 등 벤처펀드의 투자 성과 및 통계 공개

VI. 추진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①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 한국벤처투자 가변자본기업(싱가포르) 설립 및 펀드 조성	중기부	'25~
•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유치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	'25
• 달러 기반 벤처투자 조합 운용 허용	중기부	'25
• 글로벌펀드 확대 및 고도화	중기부	'25
• 글로벌 벤처투자 거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중기부	'25~
• 글로벌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행사 국내 유치	중기부	'24.下
• 국내 스타트업 유치 해외투자 현황 정례 공개	중기부	'24.下
• 국내 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	중기부 기재부 국세청 등	'25
②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충		
• 은행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금융위	'24.下~
•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 인센티브 신설	중기부	'25
• '(가칭) 밸류업 펀드' 신설	중기부	'25
•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공정위	'24.下
• '(가칭) 상생협력모펀드' 조성	중기부	'25
• 'LP 첫걸음 펀드' 신설	중기부	'25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기재부	'25
③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		
• 지역 전용 벤처펀드 추가 1조원 조성	중기부	'25~'27
• 정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중기부 행안부 지자체 등	'24.下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인구감소지역 전용펀드 조성	중기부 행안부	'24.下~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사업 개편	중기부	'25
• 모태펀드 창업초기 출자 확대	중기부	'25
• 모태자펀드 초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중기부	'25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제도 개선	중기부	'25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조성	중기부	'25
• 모태자펀드의 구주 매입 주목적 투자 한시 인정	중기부	'25~'26
• 기업승계 M&A 전용 펀드 조성	중기부	'25
•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 신설	중기부	'25
•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중기부	'25
• 모태펀드 역할 확대 및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	중기부	'25~
• 모태 자펀드 관리보수 지급체계 개편	중기부	'25
④ 글로벌 수준 벤처투자 환경 조성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규제 완화	중기부	'25
• 전문회사 협업 벤처펀드 운용제도 도입	중기부	'25
• 벤처펀드 출자자 수 제한 완화	중기부 금융위	'25
•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운용 규제 완화	중기부	'25
• SAFE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 (벤처캐피탈협회 협업)	중기부	'25
•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24.下
•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 성과평가 강화	중기부	'25
• 벤처투자자 부실징후 경고 및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중기부	'25
• 벤처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중기부	'25
• 국내 벤처펀드 수익률 정례 공표 등 홍보 강화	중기부	'24.下